

호남석유화학, 고졸 사원도 채용

롯데그룹, 상반기 고졸 1700명 설발 예정 ... 여성 채용도 확대

롯데그룹이 5월3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.

롯데그룹은 채용인원이 신입공채 1000명과 하계인턴 700명 등 1700명으로 상반기로 채용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.

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.

신입공채는 5월3일부터 12일까지, 하계인턴은 5월15일부터 2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(<http://job.lotte.co.kr>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.

모집 분야는 식품, 관광, 서비스, 유통, 석유화학, 건설·제조, 금융 등 7개 부문 38개사이다.

롯데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및 수상경력, 어학성적 등 다양한 경력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.

전역장교 등 <국가 기여형 인재>에게는 영업, 영업관리, 현장관리 등 리더십과 책임감이 우선시되는 분야 위주로 별도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.

중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러시아, 말레이시아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별도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.

롯데는 제조, 석유화학, 건설 등 그룹 사업의 다양한 분야로 여성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2>